

권근의 예악사상과 교육론

이 경 언*

권근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체계를 세우고, 이를 교육을 통하여 정착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유학자이자 교육자로, 이 연구는 그의 예악사상과 교육론을 살펴봄으로써 음악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권근의 예악사상은 예악의 발생과 본질에서 성리학의 심성론과 실천·수양론에 입각해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악이 천인합일의 수단으로서 교육이 중요한 도구가 됨을 알았다. 권근의 교육사상 또한 그가 이해한 성리학적 개념들에 근거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특히,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교육 방법론은 현재의 음악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주제어 : 음악교육, 예악사상, 교육방법론, 성리학, 천인합일

차 례

I. 머리말

II. 권근의 사상적 기반

- | | |
|----------------|-------------------|
| 1. 시대적 배경 | 2. 권근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 |
| 3. 권근의 성리학적 이해 | |

III. 권근의 예악사상

- | | |
|-----------|-----------|
| 1. 예악의 본질 | 2. 예악의 기능 |
|-----------|-----------|

IV. 권근의 교육론

- | | |
|----------------|------------------|
| 1.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 2.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
|----------------|------------------|

V. 맺는 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I. 머리말

유학은 오랫동안 우리 문화에서 핵심을 이루어 왔다. 특히 성리학은 고려 말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한 이후 조선 건국과 함께 정치, 경제, 교육 등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실천하여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본적인 이념이 되었다.

이러한 성리학은 고려 말의 이색(李穡, 1328-1396)과 정몽주(鄭夢周, 1337-1392), 그리고 조선 초의 정도전(鄭道傳, ? - 1398)과 권근(權近, 1352-1409) 등을 거치며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중 권근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체계를 세우고, 이를 교육을 통하여 정착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유학자이자 교육자로 평가되고 있다(정찬주, 1990, p. 1). 권근에 대한 연구는 그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반영하듯 철학, 종교, 역사, 정치, 문학,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음악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기천건록(禮記淺見錄)』을 중심으로 한 예학(禮學)에 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권근은 유학의 정치 질서 내용 중에서도 음악(樂)은 예와 함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오례(五禮)의 경우에도 의식만이 아니라 그 운영에서 음악적 요소가 합쳐진 말 그대로의 예와 악이 조화된 단계의 오례 운영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권근의 노력은 결국 세종대의 박연에 의해 실제적인 예악의 운영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따라서 권근의 예악사상은 세종대부터 꽃피우기 시작하는 예악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데 계기가 된 것으로, 이후 음악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악사상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 그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이다. 그의 예악 논리는 교육, 교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음악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근의 예악사상과 교육론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예악과 교육사상의 단초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음악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그의 예악과 교육에 관한 관점이 드러나 있는 저서들인 『양촌집(陽村集)』, 『입학도설(入學圖說)』, 『예기천전록』 중 「악기(樂記)」 편을 기본 자료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연구한 2차 자료를 참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II. 권근의 사상적 기반

1. 시대적 배경

고려 후기는 국내외의 시련으로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는 시기였다. 거의 100년에 걸치는 몽고의 침략과 지배,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략과 파괴, 그리고 수 십 년에 걸친 왜구의 침략과 약탈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권문세족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은 국가 권력을 천단하고 대규모 토지를 불수조(不輸租)의 사전(私田)으로 탈점하여 국가체제의 유지·운용을 어렵게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95, p. 1). 불교 대사원과 승려들 또한 방탕한 생활과 도덕적 타락으로 민중의 원한을 사는 화근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학풍과 건전한 정신을 갈구하던 사상계는 신진 사대부들의 주도 하에 원나라를 통해 주자학을 도입한다. 신진 사대부들은 대부분 지방의 향리 출신이었으나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토대로 성장하면서 중앙 관인으로 진출하여 사대부층을 형성한 것이다. 이들은 권문세가에 의한 고려사회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의 복속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아를 찾으려는 역사적 주체 의식 또한 각별하였다. 새롭게 정치 무대에 등장한 이들에게 성리학은 새로운 대안적 사상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김석제, 1999, pp. 20-21).

2. 권근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

권근은 1352년(공민왕 원년) 검교정승(檢校政丞)을 지냈던 아버지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정간공(靖簡公) 희(僖)와 정승(政丞) 한양부원군(漢陽府院君) 문절공(文節公) 한종유(韓宗愈)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대에 걸친 유가적 집안 분위기와 학문적 자질로 18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에 임명되었으며, 이때에 좌주(座主)가 목은 이색이었다. 권근은 이색의 문하에서 『예기』를 배웠고, 이색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예기』에 대한 독자적 견해를 권근에게 위임하여, 권근은 스승인 이색의 권고에 의해 후일 『예기천견록』을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이범직, 1991, p. 173).

우(偶)왕조에서는 15년간 예문응교(藝文應敎)·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예의판서(藝義判書)를 지내면서 문교 진흥에 이바지 하였고, 정몽주·정도전과 함께 위험을 무릎쓰고 배원친명(俳元親明) 외교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388년(창왕 원년)에 명나라의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이듬해 다녀온 후 정치에 관한 상소(上疏)로 말썽을 일으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던 중 『입학도설』을 저술하였다. 충주 양촌으로 돌아와서 『주역』, 『시경』, 『상서』, 『춘추』의 천견록을 저술하였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 1979, 권 I, p. 32).

1393년(태조 2년)에 조선왕조에 출사하여 예문춘추관학사(藝文春秋館學士) 겸 대사성(大司成)·중추원사(中樞院事)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403년(태종 3년) 『예기천견록』을 완성하였으며, 1407년(태종 7년) 문과중시(文科重試) 찬권관(讚卷官)이 되어 과거를 관장하였다. 그 이후 예문관대제학 겸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어 조선조 최초의 실제적 문형(文衡)이 되었으며, 유생의 교육, 각종 편찬사서의 저술 등 새 왕조의 문물을 제작 완성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왕명을 받아 경서(經書)의 구결(口訣)을 정하고,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편찬하였다. 또한 「권학사목(勸學事目)」 8조를 올려 과거제도·문신의 고과(考課) 등 국초의 교육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등 교육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허은심, 1995, pp. 10-11).

1409년(태종 9년) 58세에 타계하였다.

3. 권근의 성리학적 이해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던 불교와 도교를 철학적으로 극복하고, 유학사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여 이루어진 학문이다. 즉, 성리학은 유학사상이 지닌 약점이었던 우주론, 심성론 등에 대한 이론적인 보완과 함께 본래 유학사상이 함유하고 있던 현실적 측면의 경세론과 예론 등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도민재, 1990, p. 32).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우주의 생성 변화를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성과 도덕적 실천 방법을 설명한 심성·수양론이 체계화되었다.

이에 권근의 성리학적 이해의 내용은 그가 설명한 태극(太極), 이(理)·기(氣), 심(心)·성(性)·정(情), 천(天)·인(人) 등의 개념들을 통해 그의 이기론과 심성·수양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태극

권근은 ‘만물이 모두 하나의 태극에서 나오며, 만물의 理는 모두 태극으로부터 나온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29)고 한다. 이는 태극이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에 理를 부여해주는 최상의 근원적 존재가 태극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극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지만, 그 성격은 어떤 물질적 속성도 배제한 순수한 법칙성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권근은 “무극(無極)이란 태극 속의 理를 가리켜 한 말이고, 태극 위에 달리 또 무극이 있는 것이 아니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37)라고 하여 태극에 선행하는 무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천·인

태극이 만물이 유출되는 근거라면, 天은 현상세계에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관하는 존재로 본다. “天은 만물을 정하는 근본이며, 만물이 변화하는

원천”(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31)이라고 하여 天을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본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천은 “조화의 중심이 되고 만물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기(理氣)·오행(五行)·사시(四時)·백물(百物)이 모두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39)이라고 하여 만물이 운행하여 조화되는 원천으로 이해하고 있다.

태극과 마찬가지로 천 또한 “소리나 냄새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39), 어떤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태극이 초월적인 존재라면 天은 구체적이며 현상적인 존재로 만물의 생성, 변화를 주관하는 원리로 이해하였다.

한편, 권근은 사람이 이와 기를 다 타고나¹⁾ 그 한쪽만 타고난 물(物)과 구별되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9, 권Ⅱ, p. 70). 또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까닭을 ‘천지가 만들어내는 원리인 仁을 사람이 타고나서 마음이 되기 때문’(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32)이라고 설명하여 仁이 모든 사람을 같은 원리로 태어나게 하는 이치이며, 사물과 구별되게 하는 원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天이 부여한 理를 타고나지만 기질의 차이로 성인, 군자, 중인의 구별이 있게 되고, 행하는 일에 선악(善惡)도 있게 된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32). 여기서 사람이 타고난 理를 잘 보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敬이다. 권근은 “대개 천리를 함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敬 공부에 집착하며 물욕의 더러움을 없애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 천리가 유행하고 인욕이 깨끗이 없어진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9, 권Ⅲ, p. 84)고 하였으니 敬을 통해 인간이 그 본연의 모습인 천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敬은 理를 회복하여 성인에 이르는 길이며, 천인합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1) 理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상(五常) 즉,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성품이 되고, 氣는 오장(五臟)이 된다고 한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앞의 책, 권Ⅱ, p. 70.).

3) 이·기

권근은 理를 마음과 氣의 근본 원천이 되는 것으로, 천지보다도 먼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삼봉(三峰)의 말을 인용하여, “유자(儒者)들은 理를 주체 삼아 마음과 氣를 다스리니, 하나인 理를 근본 삼아 氣와 마음 두 가지를 배양하는 것”(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9, 권Ⅲ, p. 51)이라고 하여 理가 마음과 氣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권근은 이러한 理의 절대성과 함께 氣의 작용성을 강조하였다. “理는 본래 무위(無爲)한 것이고, 허(虛)하고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은 氣 때문이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43)라고 하여 理가 중요하지만 理 자체는 작용성이 없기 때문에 작용성을 가진 氣에 의존한다고 보았다(김석제, 1999, p. 52). 즉, 氣가 잘못 발하여 생긴 사람의 욕심을 다스리고 본래의 理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활동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氣가 가진 작용성인 것이다.

4) 심·성·정

위의 理氣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근은 마음이 理와 氣를 겸하고 있으며, 기의 작용성을 통해 마음의 활동성이 보장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천리의 회복도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나아가 마음은 성정(性情)의 본체로, 그들을 거느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33). 그가 심도(心圖)를 통해 말한 마음과 성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p. 33-35).

첫째, 마음의 작용을 통해 性이 발하여 情이 된다. 둘째, 性命에서 발한 것은 도심(道心)으로 情에 속하는데, 미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敬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형기(形氣)에서 생긴 것은 인심으로 의(意)에 속하는데, 그 기미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있으니 반드시 敬으로 다스려 극복해야 한다.

권근은 마음을 도심과 인심으로 나누고, 이를 선악의 측면에서 이기론적으로 구분하여 도심은 순선(順善)하지만 마음은 인심이 그 발(發)함에 따라 선할 때와 악할 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敬을 통한 실천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性에 대해서는, “性은 하늘이 명(命)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이치를 부여받은 바, 그 理가 내 마음 속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36)라고 하여 性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理로서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하늘의 명이 원(元)·형(亨)·이(利)·정(貞)하며 심원하고 간단이 없음은 성(誠)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오상(五)의 性이 된 것”(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9, 권Ⅱ, p. 280)이라고 하여 오상의 性이 사람이 본래 타고난 천성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性이 발한 것이 情이다. 하지만 이때 ‘사단(四端 : 원, 형, 이, 정)과 칠정(七情 : 화, 노, 애, 락, 애, 오, 욕)이 발하는 것과 그 기미에 있어 선과 악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특히 칠정은 중절(中節)과 부중절(不中節)이 있을 수 있으니 발하여 절도에 맞도록 하는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45).

결국, 권근이 설명한 태극, 천·인, 이·기, 심·성·정의 개념들은 태극, 理, 性의 회복을 통해 천인합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즉, 敬의 실천, 수양을 통해 천리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천·수양을 강조하는 권근의 성리학적 이해는 다음 장의 예악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Ⅲ. 권근의 예악사상

권근의 예악사상은 『예기천전록』 「악기」편 주석을 통해 가장 많이 드러난다. 『예기천전록』은 권근이 무려 14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저술이다. 그가 다른 경전들보다도 『예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반인들이 예의 근본이념을 쉽게 파악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예치국가의 건설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권근은 『예기』 전편 가운데도 「악기」의 주석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는 그가 예의 한계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구분에 의한 차별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차별만이 강조되다보면 조화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후 무엇보다 계층들 간의 조화가 우선 과제가 되었던 당시에 차별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것이 당면 과제였고, 이에 조화를 본질로 하는 악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1. 예악의 본질

권근은 “마음은 악이 생겨나게 된 근원이고, 性은 예가 제정되게 된 까닭”(권근, 1403, p. 15)²⁾이라고 하여 예악 발생의 근원을 심성에서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예악은 천지 그리고 체용(體用)의 관계로도 해석된다. ‘천과 지는 상하의 분별로 체(體)를 세워 예가 이루어지고, 情이 통하여 그 용(用)을 행하니 악이 일어나게 된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9, 권Ⅲ, p. 93)고 하였다. 이는 예악과 성인, 천지가 합일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악이 천지라 하였고, 예악은 성인이 제정한 것이며, 성인은 또 천지와 일치한다고 했으니(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9, 권Ⅲ, p. 117) 이 삼자는 일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情의 경우, 마음이 발한 정은 선과 악을 겸하여 외물이 인심을 움직이는 데도 사악함과 바름이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 외물에 인심에 감응하는데 절도에 맞지 않게 되면 그때의 악은 예악이 아닌 사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이 제정한 예악이 인심을 감응시키는 데 삼가게 하여 사악함이 없어진다”(권근, 1403, p. 3)³⁾고 하여 예악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예악의 실천은 천지와 합일되는, 그래서 천과 인이 합일되는 방법이 된다.

2) “心者 樂之所由生 性者 禮之所由制”(『禮記淺見錄』 권15(권근, 1403, p. 15) 「樂記·上」)

3) “人心感物而有樂 . . . 聖人制禮樂 以感人心也 物之感所 以愼之 而無其邪也”(『禮記淺見錄』 卷十五 「樂記·上」)

2. 예악의 기능

예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사악함을 없앤다고 하였으니 개인의 심성 수양을 위해 중요한 도구가 된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움직이면 풍속이 교화되니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제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서 더 나가면 예악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하고, 서로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9, 권Ⅲ, p. 93). 그래서 예악은 형정(刑政)과 함께 인욕을 금하고 천리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권근, 1403, p. 10)⁴⁾.

이러한 예악의 기능은 예악을 통해 인간의 심성을 지속적으로 수양해 가면 중인들도 군자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수양론의 지표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권근의 교육사상

1.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의 필요성은 권근이 파악한 심성론에 입각한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Ⅱ, p. 2). 인간은 마음 속에 이와 기, 선과 악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존재로 그 마음 속에 존재하는 理를 깨닫고 회복하려면 그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교육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교육을 통해 사람의 마음 속의 理를 찾고(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Ⅱ, p. 2), 또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간에 조화를 이루어 풍속을 교화하여 결국 유학이 지향하는 궁극치인 천인합일의 경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하는 것은 유자(儒

4) “禮節・樂和・政行・刑防 此四者 其所以禁人欲 而反天理者”(『禮記淺見錄』 卷十五 「樂記・上」)

者)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하였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Ⅱ, p. 256).

교육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 일반 백성을 교육하면 그 자신 심신을 바르게 하여 자효(慈孝)하고 충신하며, 이로 인해 한 고을의 풍속이 교화되니, 이것이 나아가서는 장성이 되어 국가를 바르게 보필하여 문명의 정치를 세울 자가 계속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Ⅱ, p. 288).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일반인을 교육하여 나오는 ‘국가를 바르게 하고 보필하여 문명의 정치를 세우게 될 사람’이 바로 인재가 되는 것이고, 이는 “교화를 펴고 예의를 강론하여 인재를 양성해야”(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Ⅱ, p. 290)한다는 신념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군왕 또한 교육의 대상이 된다. 권근은 “보통 사람은 비록 한 가지 재주만 능하여도 입신할 수 있지만 상위에 있으려면 배우지 않고는 정치를 바로 할 수 없고,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는 곧 망한다.”고 하여 군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예악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예악은 천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예악을 통한 교육이 천인합일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권근은 “사회를 교화하여 평천하를 이룩하여야 할 군자라면 반드시 음악에 대한 식견을 길러 음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악교육을 포함해 어떤 교육이든 그것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理를 회복하여 천일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권근은 이를 『중용』의 말을 빌려 “능히 자기의 본성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면 능히 중인의 본성을 극진히 할 수 있고, 능히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가 있어서 가히 천지의 화육에 찬조할 수 있게 된다.”(권근 저, 권덕주 역, 1974, p. 29)는 말로 풀이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은 첫째, 개인의 심신을 바르게 하고, 둘째, 자효하고 충신하는 인륜을 밝히며, 셋째, 이를 통해 풍속을 교화시키고, 넷째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며, 다섯째, 궁극적으로 천지화육을 돕는 성인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2.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권근은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농은의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즉, 농은이 “시·서·예·악의 교훈과 효·제·충·신의 도리로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후진들을 교도하고 권면하였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Ⅱ, p. 256)는 내용을 통해 공부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시·서·예·악과 효·제·충·신을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교재로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들고 있다. 그가 태종대에 교육정책안으로 내놓은 「권학사목」의 제1항에서는 사서와 오경 모두를 주교재로 삼아 시험 응시자가 어느 한 서나 경만이 아닌 사서오경 모두를 공부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사서오경의 유학사상의 근본을 초학자들도 학습할 수 있도록 『소학(小學)』을 초등교육교재로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였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Ⅳ, pp. 66-67).

한편 “정통한 학문은 배품에 순서가 있다.”(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Ⅱ, p. 152)고 하여 교육내용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순서를 정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본원을 얻는 것’(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Ⅲ, p. 153)이다. 어떤 내용에서건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을 통해 말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곳, 낮은 곳으로부터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며(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Ⅲ, p. 187), 쉬운 것부터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야 함(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권Ⅳ, p. 67)을 말하였다.

이는 결국 쉽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가 기초를 튼튼히 하며, 이를 통해 학문의 본원을 꿰뚫는 교육을 하여야 진정한 학문의 공(功)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3. 교육 방법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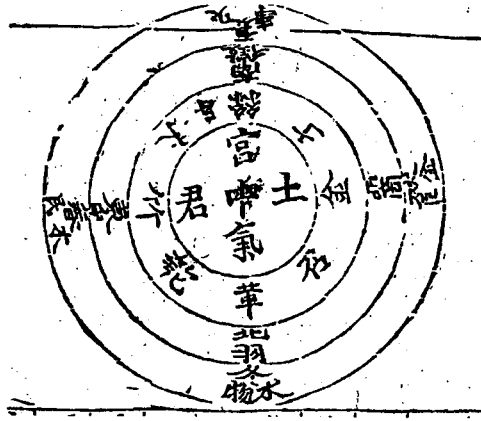
권근의 교육방법에서 두드러진 것은 학생의 개별성에 대한 배려이다. 즉, 학생의 수준, 흥미, 개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높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근거는 인간마다 타고난 기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도표를 사용한 방법이다. 그가 『소학』을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학자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입학도설』은 초학자가 사서오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으로, 초학자에게 가르칠 때 언어만을 사용해 가르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깨닫고 도표를 그려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음악을 설명하는데도 사용했는데, 『입학도설』 후집(後集)의 「율려격팔상생지도(律呂隔八相生之圖)」와 「오성팔음지도(五聲八音之圖)」는 율려 생성 원리와 오성 팔음의 관계를 도표를 통해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그 그림이다.



[그림 4-1] 율려격팔상생지도



[그림 4-2] 오성팔음지도

「올려격팔상생지도」는 오성과 12율과의 관계 12율의 관의 길이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고, 「오성팔음지도」는 궁, 상, 각, 치, 우의 오성과 금, 석, 사, 죽, 포, 토, 혁, 목의 팔음의 성질과 동, 서, 남, 북, 중앙의 방위에 따른 오기(五氣)와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하나의 도표를 통해 각각의 관계성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의 원리를 교사가 설명하기도 쉽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쉽게 되어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질의응답법이다. 그는 질의응답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초학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권근의 예악사상과 교육론을 그의 성리학적 이해를 토대로 살펴 보았다. 그가 이해한 성리학적 개념들, 즉, 태극, 천·인, 이·기, 심·성·정 등은 천과 이와 성이라는 한 곳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실천·수양론의 근거로 작용함을 보았다.

권근의 예악사상은 예악의 발생과 본질에서 이러한 성리학의 심성론과 실천·수양론에 입각해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악이 천인합일의 수단으로서 교육이 중요한 도구가 됨을 보았다.

권근의 교육사상 또한 그가 이해한 성리학적 개념들에 근거해 구체화되고 있다. 인간이 겸하여 가지고 있는 이기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그리고 마음의 활동성을 통해 교육적 실천의 당위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가 평생 교육에 힘쓰며 깨달은 교육 방법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본질을 추구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학문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예악과 교육사상은 현재의 음악교육에 몇 가지 시사점을 남겨준다.

첫째는, 음악교육의 목적에 대한 천명이다.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하는 것’이라는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즉, 음악이 인간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은 그 어떤 교육 내용보다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음악교육의 내용이 시대나 장소에 따라 침식되거나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어야 하며, 바른 인간 심성의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은 변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음악교육의 방향 또한 항상 이를 지향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는, 음악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음악이 개인 감정의 발현이자 표현이기는 하지만 음악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과정의 결과물이자 다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음악교육의 역할은 음악이 개인의 전유물이나 오락의 도구가 아니며, 음악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부차적인 교육 내용으로 치부되어서도 안되고,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는, 음악교육의 방법론과 관련한 시사점이다. 권근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쉬운 내용부터 접근해야 한다

고 했지만 항상 핵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특정 내용과 관련하여 방법론을 설정할 때 준거가 되는 것으로,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핵심을 잃고 음악 즐기기에만 열중할 때 생길 수 있는 과오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는, 음악교육의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이다. 권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특히 초학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처음 배우는 시기에 쉬우면서도 핵심을 잃지 않도록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교육 또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음악 전담 교사의 배치를 통해 음악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근 저 (1403). 禮記淺見錄 권15 「樂記」.
- 권근 저, 권덕주 역(1974). 입학도설. 서울 : 을지문화사.
- 권근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1979). 국역 양촌집.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사 권26. 경기도 : 국사편찬위원회.
- 이경언 (2003). 유학의 음악교육관 연구. 음악교육연구 24집.
- 이경언 (2004). 유학의 조화사상이 한국 전통음악교육에 미친 영향.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범직 (1991). 한국 중세 예사상 연구. 서울 : 일조각.
- 김석재 (1999). 권근 예기천견록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도민재 (1990). 조선 전기 예학사상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정찬주 (1990). 권근의 교육사상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허은심 (1995). 양촌 권근의 교육사상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ABSTRACT

Korean Li-Yue Thoughts and Views of Education of Kwan Geun

Lee, Kyung-eon

Kwan Geun was a confucian scholar and educator who played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Neo-Confucianism and making it settle down. This study aims to acquire relevant points in the education of music by reviewing his Li Yue thoughts and views of education.

In conclusion, Kwan Geun's Thoughts of Li-Yue based its origination and nature on the Mind-nature Theory, Practice Theories, and Mental Training Theory, through which education became a vital vehicle as Li Yue was a tool of unifying heaven and human being. Kwan Geun solidified his educational thoughts based on Neo-Confucian thoughts that he understood. Particularly, his pedagogy is significant for the present music education that individual talent and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base for further learning should be strongly built with pursuing the essences.